

□ '97 대동제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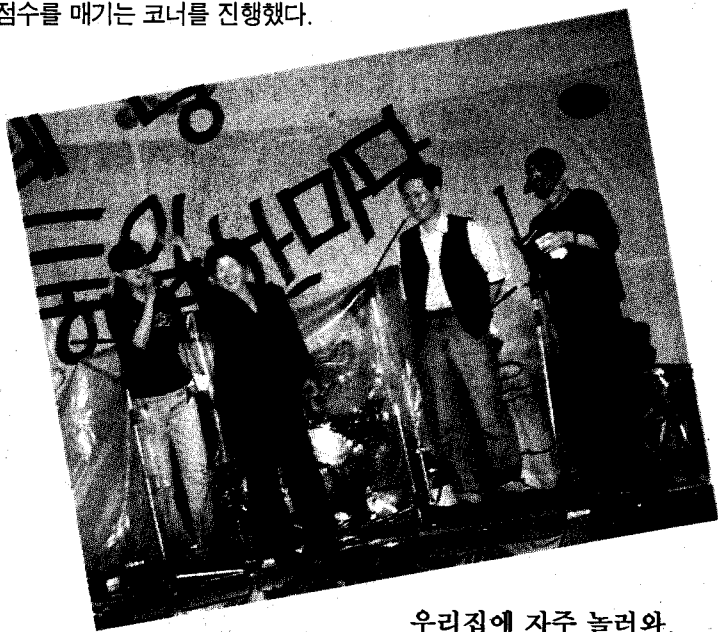
북한동포돕기에 중점 둔 '97 대동제... 참여율 저조 아쉬워

서울



이야! 색시한데?

대동제 기간중 노천극장주변 컴퓨터동아리가 연인들의 색시한 포즈를 잡아 컴퓨터 출력한 사진 중 가장 색시한 장면을 연출한 커플에게 점수를 매기는 코너를 진행했다.



우리집에 자주 놀러와.

22일 열린 회기거리문화축제 중 벌어진 주민노래잔치에 이모네집(경희주점)주인 아주머니가 등장해 '만남'을 열창했다.



예구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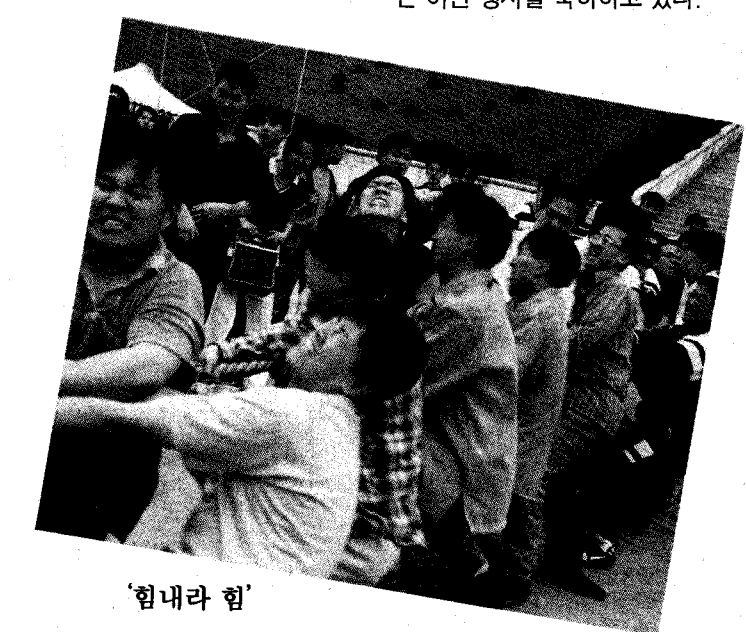
간짜이벤트로 준비한 '죽석미팅' 무역학과 학생회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픽업했으나 거부당해 차리로 돌아오고 있다.

수원



'박진감 넘치죠'

매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는 '응원대제전'에서 한양대 응원단이 출연해 열광을 맞은 이번 행사를 축하하고 있다.



'힘내라 힘'

지난 20일 공대 운동장에서 열린 전자과와 기계과의 체육대회 '올호제'에서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두 학과의 자존심 대결이 팽팽한 긴장감을 나타냈다.



정말 아플까

대동제 행사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물풍선 던지기'. 과연 풍선은 고개숙인 남자의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었을까 기대된다.

□ 대동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마을 공동체 문화와 대동제

소동(小動)을 빚고 대동(大動)으로 거듭나라

나흘간의 대동제가 끝났다. 하지만 그 나흘에 대동제라는 이름을 붙일만 한지 의문이다.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문화적 결속을 다짐하고 생산의 풍요를 빌었던 대동국이 그 연원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대동제는 초라했다. 특목 튀는 아이디어와 기발함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행사들이 난장처럼 흩어졌고 화을 되지 못한채 웅성거림으로 끝났다. 이제 우리의 대동제를 되짚어보자. 작은 동그라미가 큰 원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대동제를 부르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은가? < 편집자 >

주 강 현

<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저자 >

급변은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다. 갖가지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전통시대의 축제를 되살리려는 노력도 있다. 놀이학자들은 그 전통축제의 형식적 모범으로 대동국을 주목한다. 언제부턴가 대학가에서도 대동이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대학가의 축제는 그간의 소비성문화를 비판하면서 축제라는 말을 애써 피하면서 대동제란 명칭을 가져왔다. 물론 이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대동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역사적 의미로서의 '대동'이란 무엇일까. 대동은 곧 대동회(大同會)·대동계(大同契)·대동포(大同布)·대동미(大同米)·대동전(大同錢)·대동제(大同稅)·대동선(大同船)·대동목(大同木)·대동란(大同亂)·대동제(大同祭)·대동회의(大同會議)·대동소이(大同小異)·대동지론(大同之論)·대동지역(大同之役)·대동놀이·대동놀이·대동단결·대동싸움 등의 우리말의 흐름 위에 놓여진다. 따라서 대동국이란 글자 그대로 '넓게 하나로서의 대동' 하는 '대동'에서 유래된다. 일찍이 중국의 공자도 대동을 설하였으며, 청나라 말기 정치사상가 강유위도 대동론을 써서 동양식 유토피아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대동은 곧바로 마을공동체의 대동단결된 대동제의 집약적 통로로써 분출되는 곳이다. 포괄

적인 의미로서는 대동세상, 대동세계, 대동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비나리가 꽃피우고 만개하는 신앙의 틀이자, 놀이를 행하는 참여자들의 대망이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대동국의 '대동'이란 하나로 이르는 대동이요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체계이다. 연행(演行)되어지는 제속적 반란의 놀이이기도 하고, 수평적인 결속력을 요구하는 연대감에 기초하여 토의·집약되는 모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활과 풍습을 반영하는 대동국의 '대동'이란 의미는 문자 그대로 다함께 하나로서 이르는 대동이요 인간의 의식 그 자체로는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체계이다.

실제적인 대동국의 현장은 마을을 기초로 해서 출발하였다. 마을에서 '대동'으로 하는 것을 일러 모두 마을국이라고 평범하게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일본인들은 '부락제'라는 이름을 붙여 일괄하여 부른 바도 있다. 마을에서 행해지던 대동의 굿은 마을국과 두레국이라는 중층적 구조를 지닌다. 엄밀한 의미로는 두레국도 마을국에 포함하나 공동노동과 연관된 제의의이 분명하므로 양자는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마을국의 역사가 더욱 오랜 연대로 소급된다면, 두레국은 분명히 조선후기에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강화되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일과 놀이의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상호간에 맺고있다. 두레국을 '대동국'이라고 부르고 두레기를 '대동기'로 부르며, 마을국의 명칭에서도 '대동국'이라는 명칭이 두루 쓰여진다. 넓게 크게 차려지는 굿은 모두 대동의 굿으로 민중들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마을국은 보다 정신·문화 공동체성으로, 두레국은 보다 노동·생산공동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차이가 난다. 마을국의 풍농의례에는 생산의 풍요를 비는 마을민들의 염원이 강하게

는 것으로 굿이 끝나는 것을 보면, 그 생산의례들이 무슨 엄청난 미신에 경도되어 관념적 신앙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두레국에서도 두레기를 세워두고 지내는 기고사에서 보듯이 생산의 염원을 농기교사로 풀어내고 있다. 마을풍물패가 굿을 칠 때는 으레 마을의 당산을 찾아가서 당산국을 친 후에야 악을 두드릴 수 있었고, 외부의 걸림과 장애를 이 마을로 들어올 때도 반드시 당산 앞에서 인사를 드려야했던 전통도 유실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하여 양자는 대동국이라는 하나의 총체적인 틀 속에서 함께 위치지워지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대동제 행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며, 70년대 이래의 대학문화운동이 거둔 성과물이 아닐까.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80년대와는 대동국, 혹은 축제의 양상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도 사실이고, 앞으로는 더욱 변화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대동에서 개인의 문제로 변하고 있음이다. 대동국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더불어 함께하는 축제를 의미하였으나, 현대사회의 소외의 깊어지면서 공동체성 회복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밀거름이 되어야 함으로 변하고 있다. 민족문화전문가로서, 지난 80, 90년대 대학가 대동제의 변화추이를 지켜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의 전망이 대학문화의 장기적 전망과 맞물려있다고 본다. 작게 생각한다면 대학문화 자체의 문제이지만, 결코 대학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소외와 대동의 약화가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 줄을 꼬고 더불어 줄을 당기면서 공동체의 신명을 즐겼던 전통축제방식이 낡게 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대동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게는 대학공동체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려진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크게는 그렇게 길러진 힘이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공동체성 회복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밀거름이 되어야 함으로 변하고 있다. 민족문화전문가로서, 지난 80, 90년대 대학가 대동제의 변화추이를 지켜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대동제는 본래적 의미를 찾아 대학과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밀거름이 되어야 한다.